우암학원 창학66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대학교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光州日報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All New ES 300h
www.hyosunglexus.com
LEXUS
광주전시장 080-384-7733 | 전주전시장 080-263-7743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227호 1판 (음력 3월 14일) 2016년 4월 20일 수요일

차기 대통령 후보 지지율 안철수 38.5% 1위

'호남 대변 정당' 국민의당 59.5%·더민주 29.2%

'20대 국회 현안' 민생 34.3%·경제민주화 27.5%

정치의식·지역현안 광주·전남 여론조사

광주·전남 민심은 차기 대통령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대표를, 호남을 대변할 정당으로 국민의당을 꼽았다. 〈관련기사 2·3면〉

또 20대 국회가 민생을 챙기고 경제 민주화에 노력해줄 것을 요구했고 광주·전남 20대 총선 당선자들에게는 정권 교체에 매진해 줄 것을 바랐다.

광주일보가 창사 64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 지난 16일 광주·전남지역 성인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정치 현안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대표가 38.5%의 지지율을 기록, 수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대표가 21.3%, 박원순 서울시장이 11.3%의 지지율을 보였으며 김부겸 더민주 당선자 7.0%, 정세균 더민주 의원 4.0%,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3.4%,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2.7%, 김종인 더민주 대표 1.8% 순으로 나타났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을 포함한 별도 조사에서는 안철수 35.5%, 문재인 20.6%, 반기문 11.0%, 박원순 10.7%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대선 출마 및 현실 정치 참여 여부를 밝히지 않은 반 총장은 차기 대선의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

호남 민심을 가장 잘 대변할 정당으로는 응답자의 59.5%가 국민의당을 꼽았고 더민주는 29.2%에 그쳐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새누리당은 3.4%, 정의당은 2.5%로 나타났다. 단순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당 54.1%, 더민주 30.7%, 새누리당과 정의당이 각각 5.0%를 기록했다.

국민의당이 광주·전남 지역에서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더민주 지지층도 30%대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민심이 대선을 앞두고 양당에 치열한 경쟁을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20대 총선에서 호남의 맹주로 부상한 국민의당에게는 야권 통합(26.8%), 정권 창출(22.0%), 호남 발전 기여(20.0%), 새누리당 견제(11.0%), 중도 세력 결집 주도(9.4%) 등을 주문했다. 야권 통합 등을 통해서라도 차기 대선에서 정권 창출에 적극 나서라는 요구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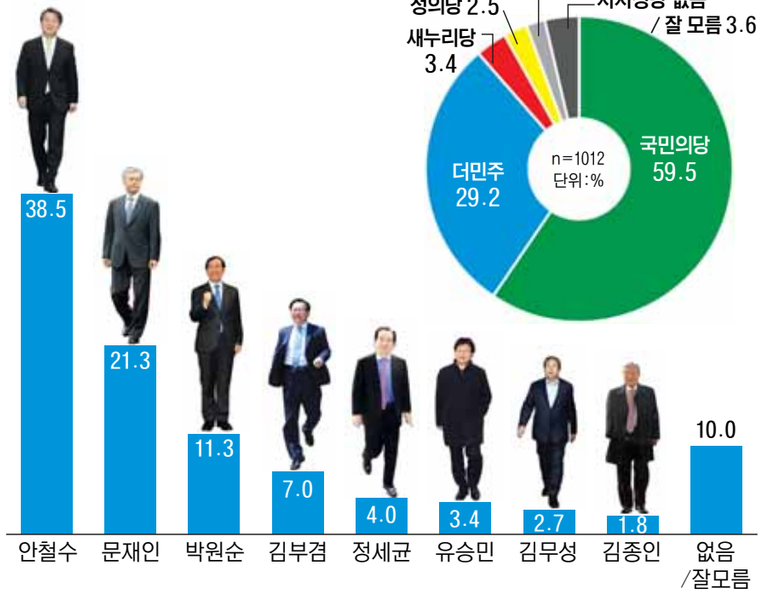
20대 국회에는 민생 중심 국회(34.3%), 경제민주화(27.5%), 특권 내려놓기(16.5%), 권력구조개편 및 지방분권형 개헌(14.0%) 등을 요구했다.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민생 경제를 살리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주문으로 읽힌다.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역점 추진 사항으로는 정권교체(46.8%)를 꼽았다. 다음으로는 지역현안 해결(25.2%), 호남정치 복원(13.9%) 등이 꼽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6일 광주·전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12명(광주 506명·전남 50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내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9%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차기 대통령 적합도



■ 호남민심 대변 정당

금남로와 함께한 광주일보 64년…100년 신문을 향하여

광주·전남 지역민과 애환을 함께해온 광주일보가 창사 64주년을 맞았다. 광주일보는 역사의 기록자로서 항상 정의의 편에 섰고, 지역의 현재를 냉철하게 진단하고 미래를 조망했다. '불편부당의 정론을 편다', '문화창달의 선봉에 선다', '지역개발의 기수가 된다'는 사시(社是)에는 이런 철학이 오롯이 새겨져 있다. 광주일보는 64년 세월을 보낸 금남로에서 독자와 함께하는 '100년 신문'을 기약한다. 모세혈관 처럼 빛이 어우러진 금남로 야경.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64
광주일보 창사특집 28면 발행

독자와 함께 정론직필 64년 8
혁신도시를 혁신하다-대만 11
이제는 문화시민-예술교육 12

공기업 특집 13~17

광주로 띄우는 그림편지 (II) 18

"광주역, 송정역으로 통합 부지 개발해야" 55.1%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위해 지역 문화산업 육성·지원을

광주 지역민 506명을 대상으로 한 광주역 존치 여부와 관련한 조사에서는 광주역이 송정역으로 통합돼야 한다는 의견이 27.7%, 광주역 폐쇄와 부지 개발은 27.4%가 지지했다. 〈관련기사 4·5면〉

호남선 KTX의 광주역 재운행 의견도 36.8%로 집계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방안으로는 광주·전남지역 문화산업 육성과 지원(33.7%)을 우선으로 꼽았다. 이어 문화전당 주변 활성화(24.2%), 공연·전시 등 콘텐츠 예산 지원(23.6%)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무등산 방송통신탑 이전 질의에는 찬성 43.8%, 반대 40.7%로 팽팽한 결과가 나타났다.

광주·전남지역민 10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광주공항의 무안공항으로의 이전 문제는 군 공항만 무안공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30.1%, 민간 부분만 무안공항으로 이전돼야 한다는 의견은 12.7%로 나타났다.

광주공항 전체가 무안공항으로 이전돼야 한다는 의견은 29.0%,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이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응답은 19.8%로 조사됐다.

전남지역 응답자 506명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찬성이 과반을 넘는 57.6%로 나타났으며, 반대는 27.6%에 그쳤다. 찬성하는 편으로 답한 응답자가 32.8%로 가장 많았고,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률은 24.8%였다. 반면 반대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15.7%였고,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률이 11.9%로,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에 반대하는 의견은 27.6%로 나타났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 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www.kjbank.com | 고객을위한 행복금융파트너
광주은행